

광주에 '중소 종합병원' 문 열었다

경영·기술 전문가들이 문제 진단·해결
광주전남중기청 자금·마케팅 지원 치유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치유하는 '중소기업 종합병원'이 문을 열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은 22일 성장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전문가가 문제를 진단·해결하는 종합병원식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술·경영 전문가들이 기업경영

진반을 분석해 위기를 진단하면, 중기청 등 진단기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진단표를 만들어 성장로드맵이 담긴 처방전을 발급한다. 처방전을 받은 지원기관은 자금·보증·R&D·마케팅 등을 지원, 치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그동안 사업중심의 단순 지원이었던 중소기업 정책을 기업중심의 문제해결형으로 전환해 기업의 체

질을 강화,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지원시스템의 경우, 130여개 기관이 20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관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수요자들의 불편과 중소기업 위기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국내 기업의 생존율도 창업 3년차가 55%, 창업 5년차 39%, 창업 7년차 32%에 그치고 있다.
이의준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사람은 건강관리를 통해 평균수명이 81세까지 크게 연장됐지만 중소기업은 글로벌 위기 등으로 오히려 평균수명이 줄고 있다"며 "기업도 사람과 같이 건강진단·관리를 받아 어떤 위기에

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건강관리를 위해 이날 오후 청사 내에 '광주·전남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를 개설했다.
위원회는 광주전남중기청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과 맞춤형 치유 사업, 기업 자체 개선 과제 등을 심의·의결한다.
중기청은 또 실무기구로 '기업건강관리팀'을 만들어 현장 애로 해결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을 배치, 기업 중심의 원스톱 문제 해결 기능을 담당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日, 광주에 동양최대 섬유공장 건설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9>

전남방직 서울이전 반대운동 ②

▲섬유 재벌 증방의 광주진출
면화수탈을 위한 일제의 식민정책은 치밀하고 교활했다. 1902년 목포가 미국 육지면의 재제 적지임을 확인한 일제는 첫 단계로 수탈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2단계는 이 기구를 내세워 독점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연후에 3단계로 목포를 중심으로 재배지역 확대에 나섰다.
/박정욱기자 jwpark@

우수품질의 원면을 현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풍부한 인력자원과 양질의 공업용수 덕분에 계열사 중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
내수는 물론 중국, 만주, 몽고 등 대륙시장을 석권하게 됐고 사세가 날로 커지면서 광주공장 가동 이듬해인 1936년에는 서울의 영동포공장을 세운 데 이어 평양에도 공

적 효과 이외에도 일상적인 잡화품의 납품, 기술사의 주·부식은 물론 김장거리나 뽕밭에 이르기까지 증방은 지역소득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선망의 대상 증방의 여공들
박선홍(朴?洪)의 '광주 1백년'을 보면 증방의 진출로 말미암은 광주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 무렵 증방의 여공들이 3000명에 이르렀는데 당시로는 가히 신여성에 속했고 시골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각들을 들뜨게 했다고 한다.
대부분 광주 주변 농촌 출신 처녀들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 농사나 길쌈의 고된 일상에 시달리던 처녀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여공이라는 새로운 신분의 사회계층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소·도읍에 불과했던 당시의 광주거리에 일요일이면 쏟아져 나오는 여공들로 인해 광주는 완전히 활력이 넘쳤다. 더구나 증방의 월급날이 되면 거리와 상가는 더욱 붐비고 광주의 경제가 흥청했다.
총각들은 여공들이 외출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일요일이 되면 할 일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광주는 선남선녀의 거리라 됐던 것이다.
증방의 부산물이 가져오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가내공업의 변화, 증방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의 호황, 여공들의 소비경제 등 한마디로 증방은 광주경제를 주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됐다.

일신방직 전신...年 1백만필 생산 광주경제 견인

우수 원면·풍부한 인력 확보...교묘한 면화 수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육지면 생산기반이 갖춰지자 가장 먼저 광주에 진출한 섬유기업이 일신의 재벌인 가네보(鐘紡)였다. 종연방직(鐘淵紡織)주식회사의 약칭인 이 가네보는 우리 발음으로 증방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일신방직과 전방의 전신이다.
증방은 이미 1925년 11월 서울에 제사공장을 낸 후 5년 뒤 1930년 8월에는 지금의 학동 평화맨션과 삼익세라믹아파트 부지(전 송의실업고교)에 광주공장을 냈었다.
서울과 학동의 제사공장 경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증방은 1935년 8월 드디어 면화의 주산단지인 전남의 광주에 진출, 지금의 일신방직과 전방방직 자리에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증방 전남공장을 건설했다.
이 증방 광주공장은 무진장한

장을 세웠다.
▲광주경제와 증방
그러나 서울 영등포나 평양공장은 생산 규모의 면에서나 수익면에서 있어서 광주공장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당시 광주공장의 생산규모는 방적기 3만6000주에 직기1440대로 연간 생산량은 면사로 3만고리에 면포로는 1백만필(疋 20자), 미터로 환산하면 600만미터의 당복과 광복을 생산했으며 종업원은 3000명에 이르렀다.
증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했다. 증방 광주공장을 모체로 하는 계열 중소기업이나 가내 수공업이 날로 번창했다. 특히 장갑, 양말, 메리야스 등 직물업이 활기를 띠었고 짜투리 낙면(落棉), 낙사(落絲)까지 불타는 바람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이권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증방의 부산물이 가져오는 경제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달부터 심도 있게 조사한다.
또 두 개 기업이 가격을 짝 맞추리니 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할 제도를 바꾼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보

도전체널 뉴스Y에 출연해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상태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3.4월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4월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봄맞이 세일행사 등을 위해 새 단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납품업체에 인테리어와 관측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5월 중에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한 번 더 조사해 6월에 공개하는 등 판매수수료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연합뉴스

光銀 더블찬스 정기예금 판매

광주는행은 22일~3월 7일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한 '더블찬스정기예금 64호'를 단독가입형과 교차가입형으로 한시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독가입 상품은 1년제 정기예금으로 원금은 보장하면서 코스피200 지수 상승률에 따라 연간 최고 12.0%의 수익을 제공하고, 코스피200 지수가 하락해도 하락률에 따라 연 최고 8.0%의 수익을 제공한다.
교차가입 상품은 고객이 더블찬스 정기예금 64호와 플러스다모아예금을 50대 50 비율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플러스다모아예금에 연 5.0%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교차 상품 합계 최저 연 2.5%에서 최고 연 8.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엄마는 행복해요” 22일 광주 북구 양산동 로하스뷰에서 열린 임신부교실에 참가한 산모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신부 교실은 아기사산 전문업체인 '베일리스 스튜디오'가 매월 한 차례씩 열어 태아의 두뇌 발달을 위한 체조 등 임신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반값 가구 나왔네”

보루네오 혼수가구 2종 출시

브랜드 가구를 반값에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보루네오가구(대표 정성균)가 '반값가구'를 출시, 판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반값 가구'는 보루네오 가구 신제품인 '이오레 이퍼 침실세트'와 지난해 히트 상품인 '이오레 보타

닉 가든'을 새롭게 선보인 '이오레 미르 보타닉 가든' 등 신혼맞장 2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160만원이 이상이었던 기존 옷장 가격을 80만원대로, 침대와 3단 서랍장을 포함한 3점 세트 역시 기존 300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150만원대로 대폭 낮



만 한정 생산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구매 고객들에게는 올 연말에 보루네오섬 코타리나발투 2차 희망 등정대 응모권을 지급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www.oknwood.com

편백 인체블럭

반신욕 겸질방 소파 및 침대

2012년 신제품 특허제품

1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1 편백나무 전시장 4층
1 친환경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히노키, 중국 향목 루바 일체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 윤기석 토탈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모보드

1 각종 내장재

- 스텝라제, 미송라제, 합판, 스티로폼의 내장재 일체
- 방부목,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1 협력사

- 우던페이퍼몰딩, 필름합판, 문짝, 몰딩,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 강화마루, 한솔강화마루, 동화마루 대리점, (주)정기방
- 라파즈, KCC 석고보드 총판
- 레포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1 목조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1 히트상품 : 편백인체블럭, 편백보드마감재

11월 24일~27일까지 열렸던 KBC건축박람회에 광남종합목재전재상사(주)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전문제작 전국 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편백 및 청업문의 010-3609-4321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

전북구이 전문점 전북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어찜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산동 367-12
예약문의 062-576-8600
전복장터 | 광주광역시 남구 양산동 367-12